

경제

최저가낙찰제 100억 이상 확대 땐 호남 건설사 피해 '눈덩이'
수주액 2377억·일자리 1922개 감소

민주당 이용섭 의원 건설협 자료 분석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로 내년부터 가격경쟁 중심의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의원이 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방건설업체 수 주 물량 감소분이 710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절감 등을 이유

이 가운데 호남권이 2377억원, 영

남권 2577억원, 충청권 1562억원, 강원·제주 590억원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분야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5750명, 호남권에 1922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물량 감소와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건설경기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및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파급경쟁에 따른 텃집압착과 전략적 저가

투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 일자리까지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하고, 미국·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최고가낙찰제 도입이나 건설경기 회복이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F1 공식 샴페인 'F1 자켓' 출시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를 기념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민미술관 앞에서 이번 대회 공식 샴페인인 머뎬 코르도 루즈의 'F1 자켓'을 선보이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 또 마찰

사측 '문답서 내지 않은 2052명 징계'

노조 '새 집행부 길들이기' 강력반발

금호타이어 노사가 노조원 징계 문제를 놓고 또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19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올 초 노조의 파업과 사측의 직장파쇄 등으로 갈등을 겪다 정상화된 금호타이어는 최근 사측이 파업 참가자의 징계 여부를 놓고 노조가 반발해 또 다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사측은 최근 '과거 불법 노동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사원들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문답서는 300여명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이들 300여명과 지난 3월 말 시한부 파업 과정에서 바로 복귀

한 1000여명은 면책됐다 고 밝혔다. 문답서를 내지 않은 노조원은 2052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관계자는 "문답서를 내지 않은 노조원을 징계할 방침"이라며 "상벌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노조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새로 출범한 집행부의 발목 잡기로 보인다"며 "사측은 내년 임단협을 앞둔 조합원들을 위축시켜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규기자 jwpark@kwangju.co.kr

중소 명절자금 지원 호남권 '쫄쫄'

현정부 들어 1조7824억

영남권의 4분의 1 불과

호남권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설·추석 명절자금 지원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권 의원이 19일 배포한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설날까지 일반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정책자금의 지역별 공급액을 기준으로 수도권 10조 2460억원, 영남권 6조 8997억원, 충청권 2조 3126억원인 반면 호남권은 1조 7824억원에 불과했다.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도 영남권이 3억 2594만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반면, 충청권 8541만원, 수도권 7170만원이었고 호남권은 6003만원으로 쫄쫄였다.

전체 규모 면에서 호남권 자금은 수도권의 1/7, 영남권의 1/4에 불과하고 업체당 평균 지원액도 영남권의 1/5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호남권(9만6160개)은 충청권(8만1231업체)에 비해 지원 대상 업체 수는 많은데 비해 지원 금액은 오히려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추석 명절자금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가장 적극적인 지원대책으로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이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권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설·추석 명절자금 지원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권 의원이 19일 배포한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설날까지 일반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정책자금의 지역별 공급액을 기준으로 수도권 10조 2460억원, 영남권 6조 8997억원, 충청권 2조 3126억원인 반면 호남권은 1조 7824억원에 불과했다.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도 영남권이 3억 2594만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반면, 충청권 8541만원, 수도권 7170만원이었고 호남권은 6003만원으로 쫄쫄였다.

전체 규모 면에서 호남권 자금은 수도권의 1/7, 영남권의 1/4에 불과하고 업체당 평균 지원액도 영남권의 1/5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호남권(9만6160개)은 충청권(8만1231업체)에 비해 지원 대상 업체 수는 많은데 비해 지원 금액은 오히려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추석 명절자금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가장 적극적인 지원대책으로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이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추석 전남 농·수·축산물 152억원 판매

전남도, 수도권 등 지난해 보다 12% 늘어

전남도는 19일 추석 명절 기간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전남산 농·수·축산물 판촉 활동을 벌였고 자매결연을 맺은 수도권 지자체와도 47차례에 이르는 직거래 장터를 개최해 7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전국 농수특산물 한마당 장터', '서울지하철

행복열차' 등 49차례에 걸쳐 수도권 판촉 활동을 벌였고 자매결연을 맺은 수도권 지자체와도 47차례에 이르는 직거래 장터를 개최해 7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남도는 또 신세계이마트, 삼성홀플러스,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의 제휴행사로 쌀쌀·굴비·과일 등 38억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이외 남도장터·옥션·G마켓·TV홈쇼핑 등 온라인판매를 통해서도 4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시·군별로는 전북, 밀치, 미역, 다시마 등을 대량 판매한 완도군이 41억원으로 최고 매출 실적을 기록했고 영광 굴비와 모깃잎 송편이 인기를 끈 영광군이 17억원의 매출을 올려 뒤를 이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비자 선호도가 좋은 품목에 대해서는 대형유통업

체에 고정납품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배추와 고추가루, 천일염 등 김장 관련 농·수·축산물 위주로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와의 특별판매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롯데그룹 6000명 채용

롯데그룹이 올 하반기에 작년보다 10% 가량 늘어난 총 6000명의 사원을 채용한다.

롯데그룹은 오는 20일부터 진행할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공채 900명과 동계인턴 650명 등 총 1550명을 뽑을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롯데는 신입사원 공채 및 동계인턴 채용의 경우 4년제 대학뿐 아니라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이수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확대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820.94 (-19.16), 코스닥지수 462.84 (-5.00), 금리 (국고채 3년) 3.51% (+0.11), 원-달러 환율 1137.00원 (+24.50)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Table with columns: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